

「道草」의 世界

金 鸞 姬*

목 차

- I. 序 論
- II. 登場人物 島田의 象徴
- III. 因果의 世界觀
- IV. 則天去私의 人生觀
- V. 結 論

I. 序 論

近代文學은 유럽사회 성립에 수반된 近代精神의 旗幟인 自我의 確立, 合理性을 기초로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近代化에 뒤진 여러 나라에서는 文學이 精神의 전문분야로서의 고유 영역외에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다는게 현실이며, 閉鎖된 사회에 있어서 知識人の 意識은 歷史的 현실이 낳은 上部構造로서 醇化된 自意識이 되었다.¹⁾ 그러한 사회에서 知識人을 대표하는 文學者는 그가 속한 사회의 諸矛盾을 象徴化하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그 存在 意義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그들은 內面的 갈등의 存在가 되지 않을 수 없었고 外來文化와 傳統文化의 마찰에서 느끼게 되는 갈등을 절감해야만 했으며 대중과 분리되어야만 하는 運命的 悲劇을 지녀야만 했다고 보인다. 日本의 경우, 知識人에 의한 지식인의 생활을 추구한 작가로서 夏目漱石(なつめそうせき)와 森鷗外(もりおうがい)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漱石은 文學面에서 많은 지식인 문제를 主題로 창작해 왔는데, 漱石의 경우 그의 내면에 따른 지식인 기질은 결국

* 人文大學 專任講師

1) 吉田精一編「夏目漱石」東京, 筑摩書房, 1981, p.146.

그의 주인공들을 비극적인 高等遊民²⁾으로서 탄생시켰다. 작가로 전향하기 이전에 英文學을 공부하고 영국유학 체험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近代意識을 체득한 바 있는 漱石은 피상적인 文明開化와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지식인의 삶의 태도와 추구라는 主題로서 일관된 創作을 해 왔는데 「道草」에서도 人物 健三(けんぞう)을 통해 그의 人生觀을 具現해 보이고 있다. 「道草」는 自傳的 색채를 띤 家庭小說이란 형태로 되어 있으나, 단순한 自傳作品, 私小說이라고 하기에는 특이한 요소를 지녔다. 오히려 '自傳的'이란 것을 하나의 方法으로 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自身을 素材로 하여 철저하게 我(ego)의 問題를 추궁하고 있으며, 登場人物들의 重層의 相對化라는 형태로서 결박할 정도의 인간 실험을 하고 있다. 自傳的 측면에서 볼 때 실제 인물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만큼 사실적 요소가 농후하지만, 개인의 기록을 넘어서 인간의 보편적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인간이 안고 있는 我執의 문제와 더불어 日常生活의 煩惱를 그리고 있는데 인간의 삶에 內在한 본질로서 「해결 없는 세계」를 구현했다. 해결이 없는 고뇌가 어떤 因果에 의한 것인지의 의문이나 작가는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 어떤 超越的인 힘을 늘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인간의 한계영역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인간의 有限性이 그것을 대상화한 것과 통하는 것으로서 因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作品 世界를 이루는 하나의 核으로 因果의 世界觀을 적용하려고 한다. 그러한 世界를 상징해 주는 人物로서 「島田」를 생각해 볼 때 島田의 등장방법과 그에 대한 묘사는 상당히 暗喩的이다. 漱石은 결국 島田로 상징되는 因果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則天去私」라는 宗教的 경지를 제시했다고 보이며 그것은 作家의 東洋的 교양에 따르자면 「自然」「天」의 理念과 통하는 것이며, 英文學的 지식에서 생각해 본다면 「神」과 맥락을 같이 하는 理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形以上·觀念的 宗教 世界로의 안이한 회피는 결코 아니며, 확고한 인식자로서의 자세를 일관하면서 對立·矛盾의 세계 인식과 그 극복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밟고 있으며, 그것은 마치 종교적 수행과도 흡사한 각고의 노력의 흔적을 보이고 있다. 「道草」에는 작가 자신이 실제로 직면해 있는 에고이즘의 문제와 그 극복의 문제가 의식적인 主題로서 나타나 있다고 여겨지며 등장인물을 통한 상징과 암유로서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자전적 작품이 지니기 쉬운 자기 변명이나 자기 절대화는 보이지 않으며, 모든 인물이 동일한 평면 위에 똑같이 비판을 받고 있다. 모든 것은 等價이며, 平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 「道草」가 그 이전의 作品들과 구별되는 점이다. 知識人으로서의 選民意識이 이 小說에서는 배제되어 있고 그 평등화를 행할 수 있는 視線으로서 絶對的 視線이 요구됐다고 보인다. 그 絶對와 통하는 것으로 「自然」「天」「神」을 작가는 번갈아 표현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서 「則天去私」의 人生觀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知」로서 「神」을 거부하면서도, 한편 경건한 信徒의 심정을 지닌 漱石의 모순적 태도에서 神에의 共感과 異和의 병존을 느낄 수 있으며 '知'를 배제한 자연 상태의 믿음에 대한 동경을 볼 수 있다. 「道草」는 日常과 밀착된 세계에서 등장인물의 상대화된

2) 林田茂雄, 「漱石の悲劇」東京 白石書店, 1988, pp. 20~25. 참조.

視線을 통해서 人生을 그 근원부터 묻는다는 형식과 더불어 論理가 중단된 곳에서 초월적인 他者의 문제가 제기되어 있어, 近代文學의 主題에 보다더 접근했다 할 수 있다.

Ⅱ. 登場人物 島田의 象徴

養父인 島田(しまだ) 老人은 始終 특이한 존재로서 作品 속에 묘사되어 있다. 이 老人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의 메타포로서 포착해 볼 때 이것은 漱石가 지니고 있는 根源的인 罪業의 상징으로 파악할 수 있다. 島田란 이름은 七章에 가서야 밝혀지고, 반복된 「帽子を被らない男」³⁾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暗喩的 表現으로서, 「帽子」는 理性的인 것과 관련 지을 수 있다. 그는 理性을 벗어 던진 野性 그대로 노출된 하나의 人間의 類型이며, 교육이나 학문에 의한 인격 확립과는 처음부터 인연이 먼 사람일 뿐만아니라 倫理的 갈등, 고뇌 따위는 전혀 없는, 作品 속의 健三와 대조되는 인물이다. 「黒い髭を生して山高帽を被った」⁴⁾의 健三은 山高帽에 의해 그의 人間 類型을 드러내는데, 山高帽의 그는 「知」의 人間을 대표하고 있다. 島田은 과거와 연결된 존재로서 島田에 의해 健三의 幼年期가 照明된다. 여기서 과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며 현재의 시간 속에 끊임없이 출몰하는 과거로서, 時間이 현재 안에 그대로 살아 있다는 인식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往來は靜でおつた。二人の間にはただ細い雨の絲が絶間なく落ちてゐる丈なので、御互が御互の顔を認めるには何の困難もなかつた。……黒い髭を生して山高帽を被つた今の姿と 坊主頭の昔の面影とを此べて見ると、自分さへ隔世の感が起らないとも限らなかつた。然しそれにしては相手の方があまりに變らな過ぎた。」⁵⁾

十五年만에 島田와 再會하고 있는 健三은 島田로부터 멈추어 있는 「時間」을 보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곳에 「비(雨)」가 媒介되어 있는데, 漱石 作品에 있어서 비는 과거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 늘 붙어다니는 이미지이다. 여기서 島田은 健三의 世界에 비를 물고 온 것이며, 健三은 좋은 삶든 자신의 기억과 체험을 더듬어서 과거의 시간속으로 들어가야만 할 운명임을 암시하고 있다. 島田와 同意語인 健三의 불행한 과거, 거기에는 漱石의 고독한 像이 투영되어 여러 형상으로 비치고 있다.

3) 「日本文學大系」27. 「夏目漱石」Ⅳ. 東京, 角川書店, 1974. p.284.

4) 上掲書 p.283.

5) 上掲書 p.283.

健三は斯ういふ昔の記憶を夫から夫へと繰り返した。今其所へ行って見たら定めし驚く程變つてゐるだらうと思ひながら、彼はなほ二十年前の光影を今日の事のやうに考へた。」⁶⁾

健三은 과거 島田의 養子로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그 시절의 그림자가 현재 그의 内部 風景으로 남아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현재 속에 있는 과거, 결국, 과거는 假像에 지나지 않으며, 실은 현재에 內在한 것으로서 그것은 未來에 까지 투사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島田는 과거에서 미래에 걸쳐 영원히 붙어다니는 魔의 그림자로서, 健三을 對象化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島田에 의해 健三은 자신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까지에는 自我와의 격투라는 내면의 劇이 작품 전체의 主調音으로 깔려 있음을 「道草」는 보여 준다. 健三의 内部 不安은 과거와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의 추악한 自身에 대한 공포로서 作品은 약간씩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健三과 島田를 구별해 주는 전제 조건은 理性的인 것이라고 보았는데, 健三은 「知」의 人間으로서의 긍지가 대단하며, 고답적인 자세로 日常속의 無教育한 사람들을 비판하며, 내려다 보고 있다.

「彼は親類から變人扱にされていた。然しそれは彼に取つて大した苦痛にもならなかつた。
「教育が違ふんだから仕方がない」⁷⁾

이러한 「知」에의 확신과 긍지는 오래 가지 않고, 島田의 악령으로부터 자신의 内部惡을 발견하게 된다. 島田는 독립된 惡人이 아니라, 健三에게서 學問이라는 껍질을 벗겼을 때 포개어지는, 健三의 野性이 된다. 健三가 島田를 향해 가차 없이 내뱉는 비판은 健三자신을 향한 비판이라는 아이러니의 구조를 작품은 보여주고 있다. 島田란 人間은,

「三度の御まんまを一かたけでも好いから他の家で食べやうつて云ふ」⁸⁾

라고 할 정도로 철저한 수전노로서, 욕심에 한도가 없는 남자이다. 그러나, 健三 자신도 강한 물욕(物欲)을 지닌 사람이며 다만 그의 물욕은 금전에 대한 콤플렉스라는 억압된 형태일 뿐이다.

「健三に對する夫婦は金の點に掛けて寧ろ不思議な位寛大であつた。」⁹⁾

健三가 島田夫婦의 養子로 있을 때, 그들의 生活로부터 物欲에의 刺戟을 영향 받았고, 현재의 그

6) 上掲書 p. 299.

7) 上掲書 p. 287.

8) 上掲書 p. 297.

9) 上掲書 p. 374.

의 안에는 교육에 의해서 억압된, 추한 모습의 잠재 형태로서 그것들이 들어 있다. 노골적인 野性의 島田는 위선을 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健三의 편협한 독선과 위선은 島田보다도, 비판하고 있는 當事者인 自身을 逆照明시키고 있다.

「彼は寧ろ潔癖であつた。持つて生まれた倫理上の不潔癖と金錢上の不潔癖の憤ひにでもなるやうに座敷や縁側の塵を氣にした彼け尻をからげて、拭掃除をした。」¹⁰⁾

島田를 관찰하고 있는 健三은, 관계속에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참모습을 냉정하게 보고 있다. 그가 경멸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의식은 어이없을만큼 허망하다는 인식이 보인다. 學問으로 구분된 차이라는 것은 자기도취적 망상일 뿐, 보다 겸허한 입장에 섬으로써, 자신의 본질, 진실을 알 수 있다는 反省的인 自覺이 엿보인다. 島田를 만난 健三은 독감에 걸려 며칠 동안을 집안에 갇혀 불안정한 기분으로 지낸다. 이것은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 자신의 진실과 직면해야 하는 공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魔に襲はれたやうな氣分が二三日つづいた。」¹¹⁾

여기서 島田는 魔로 표현되는데, 단순한 비유표현을 넘어서 健三에 붙어있는 악령의 그림자를 암시하고 있다. 島田는 健三의 추악한 현실로서 가려져 있는 内部惡이며, 과거와 결부되어 있는 뿌리 깊은 현실이다. 그 과거는 단절되지 않고 현재속에 內在하며, 미래에까지 그 그림자를 드리운다.

「一週起つた事は何時迄も續くのさ。ただ色々な形に變るから他にも自分にも解らなくなる丈の事さ」¹²⁾

健三은 島田로부터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이다. 자신의 과거의 어두운 부분은 근원적不安의 형태라는 각인이 되어, 현재 島田의 모습으로 현현해 있을 뿐이다. 島田라는 또 하나의 自我, 健三의 内部惡과의 격투를 통해, 健三은 日常的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며, 이러한 日常的 현실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漱石의 文學과 現實의 一元化의 태도가 보이며, 작가 자신이 實行的 文學을 志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착하기 힘든 현실의 모습을 냉정하게 인식함으로써 他人의 存在와 現實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의 世界안에 통일하려고 하는 作家의 노력을 보게 된다.

10) 上掲書 p. 392.

11) 上掲書 p. 302.

12) 上掲書 p. 526.

「健三が遠い所から歸つて来て」¹³⁾

로 시작되는 「道草」에서 健三가 돌아온 곳은 다름아닌, 日常生活속이며, 처자를 부양하는 생활인의 터전이다. 이 日常的 生活의 장소에서 과거의 흔적은 여전히 생생하게 되살아 나고 그는 그것과 맞서 대결해야만 한다. 그래야 자기의 본질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日常과 非日常이 교차하는 혼돈 속에서 「知」의 인간 健三는 저항하지만, 「知」로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해한 人生의 어떤 部分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健三는 學問의 높은 탑에서 내려와 他人들과 동일한 평면위에 설 수 있다. 자기 현실과의 대결은 편견과 독선을 버리고, 他人의 日常을 자신의 日常과 동등하게 바라봄으로써 가능케 된다는 作者의 인식의 문학적 실천을 볼 수 있다. 인간이 지닌 풍경은 그 자신을 나타내고, 기억으로서 소유한 광경도 그 자신을 나타낸다. 한 순간의 意識에 의해 인상지어진 기억이 그 사람의 의식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¹⁴⁾ 인식을 漱石은 「創作家の態度」¹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一時間意識は其人の生涯の意識を包して居ると云つても不條理ではありません。」¹⁶⁾

과거의 풍경이, 그 사람의 生涯를 암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때, 漱石의 불행한 유년시절의 어두운 부분은, 하나의 深淵이 되어, 内部 風景으로 적혀있는 것이며, 作品속에서 다양한 상징으로 비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의 이와 같은 철학에 의한 의식적이며 자각적인 수법이 「道草」의 세계에 많은 비유를 담아, 그 全體가 하나의 상징이 되도록 교묘하게 엮어 놓았다. 작품의 비유 속에 담긴 진의를 통찰했을 때 작품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의도된 이 작품은, 島田를 출현 시킴으로써 작가 자신의 추한면까지 포함된 본질인식을 가능케하고, 健三와 島田가 한 인간의 두 모습이라는 것이 판명됨으로써 아내인 お住, 기타 人物들과 健三자신, 다시말해서 작가 자신이 日常生活속의 他者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속의 健三의 인식의 변화과정은 漱石의 인식의 變化과정을 의미하며, 知識人이라는 선민의식 우월의식이 붕괴된, 작가자신도 日常속 他者들과 동일한 人間이라는 漱石에 있어서 새로운 발견이며 새로운 장소를 향한 준비태세를 요망하고 있다. 여기서 이념적 관념적으로 다양한 실험을 함으로써 人間の 현실을 총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漱石의 作家的 意識을 느낄 수 있다. 健三를 비판하는 近親者의 內在化된 視線의 方法은 작품 技法의 발전을 말해주며 그것에 의해 「道草」에서 처음으로 작가가 자기와 동

13) 上掲書 p. 282.

14) 「漱石全集」14. 東京. 岩波書店, 1928. pp.100~102.

15) 「漱石全集」第十四卷 東京. 岩波書店, 1928. pp.79~149.

16) 前掲書 p. 96.

일평면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他者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思想의 無力, 知的 無力을 깨달은 生活者로 돌아온 健三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日常世界에 살아야 하며, 학문의 높은 탐에 대한 오만한 긍지를 떨쳐버림으로써 日常의 번잡함을 자신의 것으로 他者들과 함께 할 수 있다. 島田·お住, 기타人物의 아집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아집도 허용되며, 자기행위의 정당화를 주장할 때 타인의 행위의 정당화 주장에도 귀기울여 받아들여야 한다. 「知」에 의해 현격히 구분된 健三과 他者와의 관계는 무너졌고 새로운 질서에 의한 가치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과제가 健三 앞에 놓여 있다. 이것은 漱石 자신, 知的 論理的 選民이 아닌 等價化된 日常世界 속에 存在한다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작가적 모색이라는 사명감을 앞에 놓고 있다는 말이 된다.

Ⅲ. 因果의 世界觀

漱石의 文學世界는 人間이 道義를 저버릴 때, 그 應報를 받는다는 認識이 나타나 있다. 漱石的 勸善懲惡의 世界觀으로서 近世文學에 있어서처럼 틀에 박힌 것은 아니며, 文學은 人生의 師表이어야 한다는¹⁷⁾ 漱石의 倫理的 教養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人間을 완전히 無力하게 만드는 어떤 원리가 人生에 內在해 있다는 인식은 漱石 人生觀의 中核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며, 「道草」에서 이러한 문제가, 日常的 世界속에 얽어져 運命의 비극적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人間이 「天真」 「자연스러움」을 파괴했을 때 휘말리게 되는 번뇌의 세계가 이 作品의 世界라고 할 수 있다. 自傳的 小說인 만큼 作家는, 이 작품속에서 自身의 成長背景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실제 親父母가 存在하는데도 불구하고 鹽原昌之助의 養子로¹⁸⁾ 入籍되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제멋대로 할 수 있는 방자한 아이로서 유년기를 보낸 作家의 어두운 체험이 島田와 健三의 끈끈한 관계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 그에게 부여된 모든 人格의 가능성이 하나 하나 파괴되어 갔던 幼年時代와 맞닥뜨리게 되는 作品이 「道草」이다. 養父 島田와의 再會 부분의 묘사가 어둡고도 무거운 것은 하나의 상징이며,

「水の變らない其壙の中は腐つた泥で不快に濁つていた。所所に蒼い色が湧いて厭な臭さへ彼を襲つた。」¹⁹⁾

이것이, 그의 幼年時代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漱石은 實父와 養父라는 複數의 父親이 있고, 핏줄

17) 漱石全集」16, 東京, 岩波 15. (日記及斷片), 1928.
18) 森田革平, 「夏目漱石」筑摩書房, pp. 121~127. 참조.
19) 「日本文學大系」夏目漱石 IV. p. 298.

의 연결까지 否定당한 父親에 대한 외디프스적 콤플렉스가 그의 作品의 「父親殺害 願望」²⁰⁾이라는 어두운 심연으로 나타나 있다. 「父母未生以前の生」²¹⁾의 전제도 이러한 유년기의 씁쓸한 회상에서 나왔다고 보인다. 公利的, 利己的 養父母에게서 양육되고 그들의 노골화된 善心과 僞善에 대한 반발, 기만과 허위 의식에 대한 불쾌한 체험이 「道草」에 그대로 옮겨져 있다. 漱石의 倫理的, 道德的 결벽성의 태도는, 어린 시절의 체험과 긴밀하게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漱石의 感受性의 예리함과 人間性에 대한 洞察은 이미 이때부터 배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生の不安」과 가족제도의 모순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유년기의 체험을 통해, 人間の 幸·不幸과 因果律의 관계를 정복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본다. 世界를 주재하는 超越的인 힘이 있어서, 自身の 運命을 不幸한 것으로 存在케 했을 것이며, 불행하게 맺게 된 인연이, 그 시절로서 끝나는데 아니라 成人이 된 다음에도 악령처럼 따라 다니며 괴롭히는 것 인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보인다.

「一運起つ事は何時迄も續くのさ。」²²⁾

여기에는 作家의 체험에서 오는 통찰한 인식이 있다.

西歐的 近代精神으로 무장하고, 자기의 독립된 삶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있는 健三 즉, 작가 자신이지만, 관계속의 人間으로 놓여지면서 健三은 완전히 無力하다. 「父母未生以前」의 罪業에 의한 因果로서 자신은 島田를 만나야만 했으며, 이것은, 필연적인 운명이 아닌가하는 인식이 있다. 人間の 理性을 초월한 원리에 의한 불가해한 因果律이, 작품 속에서는 봉건제도의 倫理라는 족쇄에 의해 상징되어 있다. 健三은 近親者인 養父母, 누나 등에게 自己 家庭의 경계를 위협받으면서까지 金錢의 援助를 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서 권리주장을 하고 있다. 봉건제 윤리가 人情·義理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으며, 지식인이며 근대인인 健三은 그것을 거부 못함으로써 그 制度에 속박당하고 있다. 속박된 개인 健三의 상황은 四面이 벽으로 차단된 듯한 甌穴을 牢獄을 연상케 하며, 실제로 그의 상황은

「其行き詰まりには大きな四角な家。」²³⁾

라는 暗喩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도,

20) 「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 「夏目漱石」 I, 荒 正人, 「漱石の暗い部分」, 東京, 有精堂, 1987. pp. 61~74. 참조.

21) 前掲書

21) 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 「夏目漱石」 II, 東京, 有精堂, 1987. pp. 176

22) 「日本文學大系」 夏目漱石 27. p. 526

23) 上掲書 p. 368.

「青年時代を全く牢獄の裡で暮らしたのだ。」²⁴⁾

라든가, 아내 お住가,

「夫が身分の勝手にで座敷率へ入っているの だから仕方がない位に考へて、丸で取り合わずにいた。」²⁵⁾

막다른 길에 서있는 「四角の家」, 「牢獄」, 「座敷率」라는 表現으로 健三을 나타내고 있다. 고립무원한 세계에서 呻吟하는 健三의 運命에 대한 暗示가 되고 있다. 「道草」의 中心點은 健三과 아내 お住와의 調和하기 힘든 夫婦생활의 관찰과 비판에 있다고 본다. 外部로는 인습적인 가족제도와 결혼생활의 기만적 양상을 볼 수 있다. 누나 夫婦의 生活과 健三·お住夫婦 두쌍의 결혼생활이 허위와 갈등으로 차 있는 것을 보게되는데, 현실의 가족제도의 모순을 漱石은 아이러니칼하게 비판하고 있다. 기만, 인위는 自然에 反하는 행위이며 天의 意志를 거역하는 것이라는 漱石의 인식 이 보이며 「天」의 뜻에서 외면하고 있는 모든 이들은, 그로인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회피해서 도 안되고 회피할 수도 없는 因果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을 볼 수 있다.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모, 자식, 夫婦의 인연이라는 인간 관계속에 놓여 지게 하는 초월적인 힘을 漱石은 추궁하고 있다.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惡緣을 선사한 초월적 존재가 있다면, 그 뜻은 무엇일까 健三은 自身の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즉 自然에 충실하는 문제로서 自然意識을 「それから」에서 이어받고 「道草」에서 健三의 自然이라는 모습을 漱石은 具見하고 있다.

「世の中に片付くなんてものは殆んどありやしない。一過起つた事は何時迄も續くのさ。」²⁶⁾

因果에 의한 業苦가 人生에 여러 형태로 변모된 모습으로 드러내 修羅의 世界를 이루는게 우리의 日常이다. 해결을 구하는 것은 헛된 기대이며, 神없는 世界, 구원없는 世界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서, 이 번뇌의 세계를 초극한다는 다소 모순된 人生觀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 학문에 의한 「知」의 人間이 되기 위해 자기 晝夜적인 精進을 해왔고 近代의 自我 確立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속하게 된 知識人 계급에 충분한 긍지를 지니고, 無教育한 存在, 精神이 없는 日常世界의 보통사람들에 대해 輕蔑을 서슴치 않았다.

24) 上掲書 p. 347.

25) 上掲書 p. 413.

26) 上掲書 p. 526.

「教育が違うんだから仕方ない。」彼の腹の中には常に斯ういふ答辯があつた。「矢つ張り手前味噌よ」是は何時でも細君の解釋であつた 氣の毒な事に健三は斯うした細君の批評を超越する事が出来なかつた。さう云はれる度に氣不味い顔をした。ある時は自分を理解し細君を審から忌々しく思つた。ある時は叱り付けたばすると彼の癪が細君の耳に空威張をする人の言葉のやうに響いた。細君は「手前味噌」の四字を「大風呂敷」の四字に訂正するに過ぎなかつた。』²⁷⁾

하지만, 自我의 주장이라는 近代精神은 또 하나의 自我와 부딪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서로 自己의 에고(ego)를 주장하고 상대방이 양보하여 자신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健三은 お住처럼 内省이 없는 맹목적인 生活人에 대해 혐오를 느끼고, 「縁無き衆生」²⁸⁾의 夫婦로서 인식하고 있다. 작가는 불행하기 위해서 결합된 존재를 보여주고 있으며 因果律에 지배된 健三의 상황으로 제시하고 있다. 健三 부부의 갈등도, 島田처럼 罪業의 상징이며, 다양한 형태중의 하나이다. 島田의 바리에이션으로서 특유한 因果관계적 존재로서 묘사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二人は二人に特有な因果關係を有つてゐる事を冥冥の裡に自覺してゐた。さうして其因果關係が一切の他人には全く通じないのだといふ事も能く呑み込んでゐた。』²⁹⁾

두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인간관계이지만 因果의 力學은 둘을 떼어 놓지 않고 다시 三角關係로 分解·發展하는 因果의 運動을 한다. 一對一이 最小單位로서 因果의 인간관계가 성립되고 아이의 出生으로 다시 삼각관계를 이루어 연쇄적으로 未來를 向한다. 얼마만큼의 변화무쌍한 인과운동은 알든지 모르는 인과의 공포와 인간의 무력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作家는 神을 생각하고, 불평을 한다.

「神でなす以上公平は保てない」
「神でない以上辛抱だつてし切りれない。」
「健三は 好意を以て一般の人類に接した。』³⁰⁾

健三의 人類에 대한 好意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 人物은 다분히 惡意的 存在로 표현되어 있으며, 여기서 오는 고통과 운명의 무자비함에 대한 저항감은 초조와 不安의 低音部로서 內化된 體가 肉聲으로 발하고 있다고 보인다. 健三의 狂氣的 行動과 お住의 히스테리는 因果의 고통을 견

27) 上掲書 p. 287.

28) 上掲書 pp. 479~481.

29) 上掲書 p. 401.

30) 上掲書 p. 526.

디기 위한 하나의 완화제의 역할이라 볼 수 있고, 그들의 부딪치는 에고를 內省的 자세로 응시하게 됨으로써 健三은 お住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고 보인다. 作品은 점점 인간적인 포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健三의 분노감정을 卽自化하고 있다. 그 연결형태로서 自然에 따르는 방법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자연」「天」이 健三의 본래의 모습 및 思想, 感情을 모두 살려 내고 있다.

「跌まづいて天にいたる」³¹⁾

日常世界라는 현실에 몸을 두고 사회의 모순을 포함한 생활자체의 불쾌한 부분까지 대중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함으로써, 天道에 이를 수 있다는 작가의 윤리적 태도가 보이며 보다 겸허한 자세로 운명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참여함으로써 저항하는 지식인상을 보게 된다. 이제까지 작가가 창출한 고등유민적인 지식인들이 대중과 분리되어 그들의 고뇌를 표현하고 있는데 비해, 「道草」의 健三은 대중에게로 자신을 낮추어 현실에 참여하는 知識人像을 보여 준다.

IV. 「則天去私」의 人生觀

이 作品은 知的 倫理的으로 우월자라고 믿고 있던 健三가 실은 자신도 경멸의 대상인 他人들과 마찬가지로 동일 평면위에 존재한다는 反省的 인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주인공 健三과 お住, 누나 夫婦, 養父 島田 등 등장인물은 모두 상대적 관계에서, 시점인물의 빈번한 교체를 통해 漱石 자신을 비판대 위에 올려 놓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自我의 모순 및 현실적 外在的으로 夫婦單位의 가정을 압도하는 가족제도의 횡포를 볼 수 있다. 봉건제도하의 의무, 의리라는 윤리가 강압적인 형태로 요구되는 「不自然」을 작가는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가족제도의 강압은 한 개인의 의지로 차단할 수 없다는 의식을 지니고 선택한 것이 因果, 罪業으로서의 世界觀이라고 생각된다. 健三과 가장 가까운 他人으로서 お住가 나오며, 부부 사이에서도 人物 相互간에 작용하는 自己에 있어서의 利用度를 발견하게 된다. 양보 없는 에고가 서로를 불행하게 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 我(ego)는 超克되어야만 한다. 我를 초극하는 길, 이것은 自然에 따르는 길이며, 天의 뜻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는 自發的인 깨달음의 길로 作品은 인도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고통은 自我 해방을 위한 격투였으며, 健三의 고독과 狂氣를 필요로 하는 하나의 단계였다고 보인다. 自我와 더불어 他我를 존중한다는 進步的 개인주의는 我的 추악함과 결절적으로 대결함으로써 「則天去私」의 길을 향한 새로운 모색에 착수한다.

31) 實方 清 「夏目漱石文藝辭典」東京, 清水 弘文堂, “則天去私” 참조

「私を去つて天に則る」³²⁾

天道(自然)을 따르기 위해 我를 버린다. 「則天去私」에 대한 해석은 현재 論者가 다 의미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漱石의 造語이다. 倫理的 人生觀으로서의 관점이 있는가 하면 美의 世界의 絶대성, 崇高性을 지향한 예술관으로서의 관점이 있다. 漱石의 경우 美의 絶대성의 문제보다는 道德的 善의 세계에 비중을 두었을 거라고 생각된다.

「天」의 思想은 말할 것도 없이 中國 古代 思想에서 나온 것이며, 人間의 世界와 차단된 絶對無限의 세계로서 人間의 일체를 지배하는 원리이다. 그러나, 漱石의 경우 「則天去私」란 속어는 我를 버리고 天을 따른다는 정도로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이라는 에고이즘의 主體로서의 存在도 도덕적 수행을 쌓음으로써 에고이즘의 자신을 버리고 自然의 天道에 이를 수 있다는 관념이다. 「則天去私」의 世界가 나오게 된 동기를 추측해 볼 때, 「私의 세계」 즉 에고이즘의 세계를 추궁해 간 막다른 곳에서 그 아집으로 부터 보다 높은 道德 自然의 世界를 구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작가 자신 끊임없는 병마 속에서 가사 상태를 체험하고 人間의 運命적 悲運을 느껴온 터에 그와같은 비극적 세계의 고뇌와 고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安心立命의 경지를 생각해 냈다고 보인다. 아집과 고뇌의 비극을 넘어선 세계로서 제시하기는 했지만, 文學 세계에서 이것을 높이 평가할 성질의 것은 아니며, 作品에서 「則天去私」가 높은 가치로서 성립된다면, 문학 작품의 가치는 그에 반해 소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다만 아집때문에 고통과 고뇌에 찬 人間생활을 직시할 때 그 고통을 덜 수 있는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人生觀을 구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게 좋을 것 같다. 오히려 漱石文學의 가치는 고뇌의 배를 타고 고통의 심연을 힘들게 헤메는 문학으로서 더욱 가치가 인정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日常속에서의 人間 關係를 相對化해가는 과정에서 自然·天·神의 관념을 작가는 떠올렸고, 倫理的 人生觀으로서 「則天去私」의 像을 제시했다. 그 像을 통해, 서구 근대사상과 東洋의 교양의 대결 속에서 고통하고 내면적인 실존적 자기 검증을 한 작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大學在學時 漱石은 「老子의 思想について」³³⁾ 라는 論文을 쓴 바 있으며, 「道草」의 人物 視점의 相對化라는 방법은 그때 이미 터득했다고 보인다. 絶對 앞에서만 重層의 相對化가 가능하다. 작가는 기독교, 불교, 유교라는 특정교의 교도가 아니다. 그러한 작가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초월적 존재일 뿐이며, 그 명칭은 아무래도 상관 없을 것이다. 自身을 상대화할 수 있고 自己의 本然의 모습 思想·感情을 드러내 줄 수 있는 絶對로서 「自然」「天」「神」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특정 도그마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보인다.

32) 『掲書』 p. 181.

33) 『漱石全集』第16卷「老子의 思想」について (明治25年 6月1日 稿(東京大學文科大學 東洋哲學 論文))

「若し其神が神の眼で自分 の一生を通して見たならば此強慾な老人の一生と大した變りはないかも知れないといふ氣が強くした。」³⁴⁾

여기서 절대적 시선으로서 神이 나오고 있으며, 自然앞에서 모든 것은 等價·平等하다는 理念을 보여 주고 있다.

「彼は神といふ言葉が續いてあつた。然し其時の彼の心にはたしかに神といふ言葉が出た。」³⁵⁾

健三가 싫어한다고 한 「神」은 漱石가 「神」이라는 문제를 安易하게 끌어내는 것을 싫어했다는 말이 된다. 漱石는 「信仰을 가져라. 그러면 不安은 없어진다」는 식의 편리한 論理를 혐오하고 반발한다. 인간의 불안이라든가 고뇌가 것처럼 간단하게 처리되어도 좋은가 하는 회의와 자기 내면의 갈등을 거치지 않은 마취제적인 처방은 인간이 자기의 문제를 회피하는 비겁한 방식의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는 神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불평도 한다. 神을 싫어하면서도, 好惡를 떠나서 「神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쓸 수 있는 것이다. 결국 則天去私의 문제가 대두된다. 「道草」 안에 직접적으로 이 단어는 나오지 않으나, 天이라는 단어와 作品 後半에 오면서 보이는 健三의 人間들에 대한 연민의 태도 및 작품의 분위기가 內實쪽으로 기울어져가는 것을 보게 된다. 天은 內實과 통하며, 그것이 自身の 모든 것을 상대화하며 절대적 他者앞의 개인의 實存이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神은 하나의 方法 意識으로서, 有限性を 통절하게 자각하기 때문에 그 유한성의 대상화로서 神을 말하고 있다.

인간 감각에 어떤 감각이 나타날 때 감각 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특수한 抽象作業안에서 가능하다. 아무런 대상이 없을 때 인간은 자신을 알 수 없다. 對象과 關係속에서 자기가 무엇인지를 알아간다. 인간에게는 해명할 수 없는 모순이 있으며, 그 모순을 역설로서 표현한 것이 神이다. 역설은 理論이 어떤 모순의 구조를 밝힐 수 없을 때 그 모순 속에서 나오게 되는 현상을 예리하게 포착한다.³⁶⁾ 教養·文明을 부정하는 漱石는 自然의 單純함 속으로의 귀환을 회구하고 있으며, 全作品속에서 집요하게 具見해 온 것도 自然의 문제이다. 道草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여운을 남기고 작품이 끝나는 것은, 모순의 영원한 해결은 없다는 커다란 상징이다. 단순한 자연에의 귀환, 我를 버려 天道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倫理的·道德的 人生觀으로서의 「則天去私」라고 볼 수 있다. 「則天去私」의 神話는³⁷⁾ 漱石의 弟子들에 의해 탄생했으며, 작가를 왜곡시

34) 上掲全集, 「夏目漱石」 p. 341.

35) 吉本隆明 「漱石의 主題」 東京, 春秋社, 1986, p. 240.

36) 梅本克己 「唯物史觀と現代」 東京, 岩波書店, 1974, p. 9. 40~46.

37) 江藤 淳, 「夏目漱石」 東京, 講談社 1979. pp. 11~20. 참조.

키는 감이 있다. 오히려 작가의 뜻은 보다 단순 소박했으리라 생각된다. 「道草」의 人物들은 日常性 속에서 늙어간다. 여기에는 生·死가 보이며 인간의 숙명이 나타나 있다. 그러한 日常性조차 커다란 의지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것이며, 인간은 自然에 따름으로써 자신을 초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自然·天·神은 형태만 다른 理想의 集合體이며 未知의 自然의 別名이라고 할 수 있다. 則天去私는 漱石 精神形成史의 마지막단계로서 그 다음의 未完의 마지막 作品「明暗」의 준비작업 단계였다고 볼 수 있다. 그의 文學觀은 곧 人生觀으로서의 일치를 보여줌으로써, 「文學は人生の師表たるべし」³⁸⁾를 입증한 셈이다. 思想과 日常生活의 갈등을 통해 얻은 실용적인 倫理로서의 則天去私는 自然과 人間과의 미묘한 상호작용 및 그 모순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道義의 으로 意義가 있는 藝術이 참된 藝術이라는 작가의 예술관도 노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V. 結 論

漱石은 윤리의식으로써 사회에 대한 하나의 座標를 지닌 작가이다. 明治시대를 대표하는 한 知識人으로서, 그는 文明 속의 日本의 위기를 냉철하게 주시했다. 근원에서부터 日本文化의 모순을 통찰하고, 東西洋의 精神의 本質의인 차이도 밝히지 않고 借用에 급급한 日本 近代文學의 風土에 대해서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으며, 그 자신은 취약한 근대사회와 식민지적 문학풍토에서 지식인의 에고(我)의 갈등이라는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하여 東西洋의 결합을 필사적으로 추구했다. 그의 작품속의 고뇌하는 고립무원한 知識人像은 이러한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그 갭을 메워주는 人生觀으로서 「自己本位」³⁹⁾라는 입장을 수립했으나 이 人生觀도 晩年에 이르러서는 東洋의 精神 쪽으로 기울어 「則天去私」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漱石은 儒·佛·禪⁴⁰⁾ 西洋近代精神의 복잡한 思想系統을 한 몸에 具現한 作家로서 「道草」에서는 그의 東西思想이 혼연한 상태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지식과 비평정신은 自身을 비판대에 올려놓고 人間世界를 解明하려 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그가 創出해온 破滅型의 知識人像과는 달리 大衆과 유리되지 않은 지점에서 實存的 自己檢證을 해가는 知識人 健三을 創出했다. 이것은 작가의 人生觀이 高踏的 자세에서 庶民的 자세로의 변모를 말해주며, 文學 또한 겉혀하고 內省的으로 되었음을 말해준다. 「道草」의 人生은 확실히 뒤틀려 있고, 健三의 作業도 엉겨주춤이다. 이것이 바로 人生의 모순적 모습이며, 무해결

38) 「漱石全集」 14. 「文藝の哲學的基礎」 p. 73.

漱石은 文學의 理想을 眞·善·美·壯으로 파악했고, 곧 人生의 理想으로 보았다.

39) 前掲書 pp. 354~380 참조. 「私の個人主義」(大正3年 11月 25日)는 영국 유학기의 체험 및 고뇌를 회고하는 연설이다.

40) 漱石文學에서의 禪은 東洋의인 靜的 世界의 안락함과 같은 것으로서, 內面, 침잠의 여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의 精神에 크게 공명하고 있다. 本來的인 禪과 비교할 때는 다소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의 修羅世界를 우리는 살도록 되어 있다는 의식하에, 日常의 重層속에서 전개되는 불쾌와 번뇌를 절박하게 그려내어 인간의 에고이즘, 人生의 本質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세계를 인식하는 方法으로서 因果로서의 世界를 제시하는 한편, 인간의 본질을 포착하기 위해 人物의 상대화된 象徴, 暗喩 등의 技法을 實驗的으로 使用하고 있다. 온갖 실험적 방법으로써 自我의 格투에서 「則天去私」까지의 漱石의 歷程을 강렬한 自我意識에 의해 형상화하고 있는데, 我에 의해 고통받아야 할 存在라면, 그 我是 超克되어야 한다는 自身の 倫理的 立場의 表明이기도 하다. 我的 超克 그것은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여, 단순한 自然으로 귀환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암시와 함께 절대적 시선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절대적」과 통하는 것으로서 天·自然·神을 말하며 文學의 倫理的·道德的 실행을 보여주고 있다. 관계속의 인간, 절대적 시선앞에서의 인간, 또 인간 상호간의 相對化, 이러한 모든 방법이 體三, 나아가 人生과 인간의 본질을 명백히 드러내 주고 있는데, 이러한 相對化와 矛盾에 의한 人間 및 人生 解明을 「道草」는 시도하고 있다.

결국, 「道草」의 主題는 「世の中に片付くなんてものは殆んどありやしない。一廻起つた事は何時迄も續くのさ。」라는 作品의 終結 부분에 요약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一瞬一刻을 견디기 어려운 苦惱속에서 살아가는 人間の 性실에 대한 문제가 있다. 自傳的 小説이란 형태로서, 漱石라는 한 人間の 世界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道草」는 작가의 出發을 의미하며 醜惡한 것이 支配하는 세계속에서 精神的 倫理的인 것을 추구하며 苦惱하는 人間の 魂의 所在가 작품속에서 분명하게 보인다. 사랑의 결핍이 구원하기 어려운 인간의 모습이라는 작가의식의 또다른 하나로서 「아집」을 보여 주었으나, 전체로서는 사랑의 理想에 도달할 수 없는 人間の 현실적인 모습이 運命에 순종하는 諦觀의 형태와 통할 수 있는 「則天去私」의 경지로서 나타나 있다고 여겨진다.

Summary

The World of "Michikusa"

Kim Nan-hee

"Michikusa" expresses how Soseki's view of life changes. It is by means of his autobiography. Kenzo, hero in Michikusa, faces the conflicts of the Ego in common life. It makes human experiment to the extreme degree, describing overlapped contrast of characters. It deduces the human universality from their private lives. The life is the world of anxiety or the unsolved labyrinth in the novel. It should be Soseki's view of life. And the world of 'Michikusa' should be taken for that of causality. Limitness of humanity is reified to "the Nature", "God" or "Ten" in this article.

It takes concrete shape of Kenzo who believed in the transcendent being. Kenzo does not evade his role in the world of causality. He gives up his vested superiority and elitism. He realizes humanity, intellectual or not, be equal in the Transcendent. The author, Soseki, keeps up the position as clever realizer, immerses himself to solve the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in the world. He lights up the ethical view of life, i.e., "Sokutenkyosi", transcending the Ego.

"Michikusa" asks the question of life, describing common lives, making contrast of character's views of life. In logic-free state, it raises transcendent "Andere", approaches theme of modern literature. "Michikusa" describes the process from western individualism to oriental spirit, i.e. Sokutenkyosi. In the process it has conflicts of the Ego, inner life of Soseki that stands out in 'Simada'. It concludes that 'Michikusa' is not only collection of parts of symbol, but a symbol itself.